

조부모 및 부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s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 사 이 진 민**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조 교 수 송 승 민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 수 도 현 심***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Lee, Jin-Min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The Univ. of Suwon

Assistant Professor : Song, Seung-Min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Doh, Hyun-Sim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between generations and the comparative effects of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parenting styles on the parenting styles of parents. The subjects were 299 mothers and fathers of children aged between 2 and 5 years old who attend 9 preschool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show that a strong relationship exists between grandparents' parenting styles and the parenting styles of parents as grandparents' parenting styles predict parents'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sty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influence of grandmothers' parenting styles on the parenting styles of mothers is stronger than that of grandfathers' parenting styles, but less influence of grandfathers' parenting styles on fathers' parenting styles exists.

▲주요어(Key Words) :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조부모 양육행동(grandparents' parenting behavio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Freud(1952)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며 요람에서의 경험

이 잠재 의식화되어 후일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을 이루기 때문에 인성은 주로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남상인, 1983).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이진민 (E-mail : jinminii@hanmail.net)

*** 교신저자 : 도현심 (E-mail : simdoh@ewha.ac.kr)

졌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차원론적 접근은 양육행동의 상이한 차원들 또는 측면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양육행동의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고, 유형론적 접근은 자녀양육의 보편적인 방식 또는 유형, 양육행동의 조직과 분위기 등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인 양육환경을 보여주는 창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박영애, 1995; Steinberg et al., 1994).

유형론적 접근을 통해 양육행동을 연구한 대표적인 이론가인 Baumrind(1967)는 유아원 아동을 관찰하여 행동특성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눈 후, 그 세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의 부모양육을 통제성의 정도가 높고 애정의 정도가 적은 권위주의적 태도, 통제성의 정도가 높고 애정이 많은 권위적 태도, 통제를 덜 하고 애정이 많은 허용적 양육태도로 분류하였다. Maccoby와 Martin(1983)은 Baumrind의 세 유형에 비요구적이고, 거부적이면서, 애정적이지 않은 유형을 추가하여 독재적, 권위적, 허용적, 그리고 방임적 양육행동의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차원론적 접근을 통해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Symonds(1949)는 부모-자녀관계를 거부-보호, 지배-복종의 2개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이며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양육태도를 애정-적대와, 자율-통제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Becker(1964)는 Schaefer의 두 차원에 분리-지나친 관여의 차원을 추가하여 온정-적의, 제한-허용, 그리고 냉담한 분리-불안한 정서적 관여라는 세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비교한 전우경과 강정원(200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은 증가하였으나 통제적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양육행동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수되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부모를 포함한 3세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의 양육행동에 그 기원을 두고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 세대 간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연구결과들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한다(강은주, 2000; 김현주, 1996; Belsky et al., 2001; Belsky et al., 2005; Cronkenberg, 1987; Jefferis & Oliver, 2006; Kitamura & Shikai, 2009; Laub & Sampson, 1988; Simons et al., 1991).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동양식의 발달을 낳고, 이러한 행동양식은 이후 행동들과 궁극적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Serbin & Karp, 2004). 그러나 여전히 부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의 기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세대 간 전이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확실하지 않다(Kitamura & Shikai, 2009; Shaffer et al., 2009). 부모 양육행동의 어떠한 요인들이 성인자녀의 자녀양육과 관계가 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Conger 등(2009)은 2009년 *Developmental Psychology*에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특별 섹션에서 발표된 5편의 연구에 대해, 1세대의 가혹한 부모양육행동은 2세대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양육행동을 예측하며 서로 다른 연구대상, 측정도구, 측정기간과 상관없이 5편의 연구가 초기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고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에게 가혹한 양육행동을 받았던 자녀들은 이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유사한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부정적 양육행동은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듯이 긍정적인 양육행동도 세대 간 전이 된다는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각되는 성인의 경우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보다 더 정서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Crossman et al., 1988; Crowell & Feldman, 1988; Whitbeck et al., 1992), 생후 초기의 좋은 양육의 경험은 이후 중기 성인기에 세대 간의 바람직한 자녀양육을 예측할 수 있다(Simons et al., 1993).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부모양육의 세대전이에 관해 20년 동안 종단연구를 수행한 Chen과 Kaplan(2001)에 의하면, 첫 번째 조사 시점인 13세에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세 번째 조사 시점인 30대 성인 중기에 건설적인 자녀양육을 한다. 즉, 초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양육경험이 이후 성인 중기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세대전이 한다. 이와 같은 역할모델링의 결과는 세대 간의 유사한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Simons et al.(1993)이 발표한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숙희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권위형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권위형이었으며, 외조모가 방임형일수록 어머니도 방임형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정서와 기억을 통합하여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고 반응하고자 하는데(장혜자, 2001), 아동기에 돌봄을 덜 받고 과보호를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도전적인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역기능적 양육 인지를 갖게 된다(Jefferis & Oliver, 2006). 이와 같은 역기능적 양육 인지로 인하여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세대 간 전이 된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민감한 양육을 받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도 이와 유사한 양육행동을 보임으로써(Belsky et al., 2005), 외조부와 외조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 외조부모와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강은주, 2000)도 애정적 양육행동은 외조부모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연구에 비해 등한시 되어 왔고 (Phares et al., 2005), 연구들은 아버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Kerr et al., 2009). 아버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는 공격성 등 부정적 양육행동에 대한 전이를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세대 간 전이된다고 보고한다(박성연, 2002; 문혁준, 2007, Capaldi et al., 2003). 부정적인 양육행동 외에 온정적 아버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해서, Belsky 등(2005)의 연구에서는 1세대 조부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은 2세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만 2세대 아버지에게의 세대 간 전이의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박진희(2003)의 연구에서는 조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적일수록 거부적이고 통제적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와 조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짐을 보고하며,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지각은 아버지-아들이 어머니-딸보다 크다는 보고도 있다(Campbell & Gilmore, 2007).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훈육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김수연 등, 1994; 문혁준, 2000), 공격성 등 행동문제에서의 세대 간 전이(박성연, 2002; 이지희, 문혁준, 2007; 정문자 등, 2004)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어느 한쪽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여(김현주, 1995; 강은주, 2000; 박진희, 2003; 최규순, 1991),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를 고려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그들이 지각한 자신의 부모들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패턴을 부모 모두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세대인 조부모 양육행동의 어떠한 요인들이 2세대인 부모 양육행동에 전이 되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양육행동을 Schaefer(1959)의 연구에 기초하여 애정, 자율, 거부, 통제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고, 요인별로 조부모와 부모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조부 및 조모와 아버지 및 어머니 모두를 고려하여 조부와 조모의 양육행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 성별에 따라 자녀를 다르게 양육하며, 자녀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지각하기도 한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된 쌍둥이들이 각자 다르게 보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 따라 정말 달랐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Harris, 1995). 남자는 여아보다 부모로부터 성취기대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를 더욱 거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손낙주·최보가, 1996), 양육방식도 더욱 통제적이라고 보고한다(조복희·정옥분, 유가효, 1995). 또한 부모들은 아들에게 더욱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여(양옥남, 1977; 하승민, 1984; Fagot, 1978), 딸보다는 아들에게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전이된다(강은주, 1999). 반면에 딸에게는 아들에 비해 보호적인 행동과 애정표시를 더 많이 한다(Russell & Russell, 1987). 또한 자신과 같은 성을 가진 자녀보다 다른 성을 가진 자녀를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고(양옥남, 1977; 하승민, 1984; Fagot, 1978; Rothbarth & Maccoby, 1966), 부모양육의 세대 간 전이는 동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보다 분명한 것으로 발견된다(정문자 등, 2004; Campbell & Gilmore, 2007).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수용적, 자율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으로 지각한다(문혁준, 1999).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보이며 자녀의 지각도 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조부모-부모세대간 양육행동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아동기 경험은 이후 자녀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성이 높고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조부와 조모의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조부 및 조모의 양육행동 세대전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양육행동과 부와 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를 알아보고자 하며, 조부와 조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부모 및 외조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와 모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1] 친조부모의 양육행동은 부의 양육행동과 어

- 떠한 관계가 있는가?
 [1-2] 외조부모의 양육행동은 모의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조부와 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1]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4개구에 소재한 9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299명의 만 3-5세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부모와 부모는 아동의 입장에서 본 호칭이며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선행 연구(이숙희 등, 2009)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조부모, 외조부모, 그리고 부모로 호칭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299)

변 인	빈도(%)	변 인	빈도(%)
성 별		아동의 출생년도	
남아	139(46.5)	2003년	147(49.2)
여아	160(53.5)	2004년	82(27.4)
		2005년	70(23.4)
출생순위		가족구조	
외동이	79(26.4)	핵가족	207(69.2)
첫째	83(27.7)	대가족	92(28.0)
둘째	121(40.5)	기타	10(2.8)
셋째 이상	16(5.4)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34세 이하	35(11.7)	34세 이하	39(30.4)
35~39세	129(43.1)	35~39세	153(51.2)
40~44세	114(38.1)	40~44세	46(15.4)
45~49세	13(4.3)	45~49세	5(1.7)
50세 이상	7(2.3)	50세 이상	3(1.0)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4(1.3)	중학교 졸업이하	8(2.7)
고등학교 졸업이하	75(25.1)	고등학교 졸업이하	107(35.8)
전문대졸업, 대학교 중퇴	60(20.1)	전문대졸업, 대학교 중퇴	72(24.1)
대학교 졸업	128(42.8)	대학교 졸업	96(32.1)
대학원 이상	31(10.4)	대학원 이상	15(5.0)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무직	3(1.0)	무직, 주부	160(53.5)
일용직	12(4.0)	일용직	7(2.3)
서비스직	29(9.7)	서비스직	16(5.4)
자영업, 일반 판매직	74(24.7)	자영업, 일반 판매직	20(6.7)
일반 사무직	16(5.4)	일반 사무직	26(8.7)
회사원, 교사 등	109(36.5)	회사원, 교사 등	51(17.1)
전문직	31(10.4)	전문직	7(2.3)
기업주	7(2.3)	기업주	0(0.0)
기타	15(5.0)	기타	10(3.3)
무응답	3(1.0)	무응답	2(0.7)

<표 2> 조부모 및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N=299)

척도	친조부모		외조부모		부	모
	조부	조모	조부	조모		
애정	.80	.80	.86	.82	.82	.80
자율	.69	.65	.65	.61	.57	.62
거부	.65	.70	.70	.67	.62	.63
통제	.80	.79	.79	.67	.72	.69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표 1>에서 간단히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139명의 남아(46.5%)와 160명의 여아(53.5%)로 구성되며, 아동의 연령은 만 3세, 4세 및 5세가 각각 70명(23.4%), 82명(27.4%), 147명(49.2%)으로 만 5세 아동이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69.2%이고 대가족이 28%로 핵가족 비율이 높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각각 43.1%와 5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이 각각 35.8%와 32.1%로 가장 많았다.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18.1%, 200~300만원이 24.1%, 300~400만원이 23.4%, 400~500만원이 15.4%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36.5%로,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 및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원영(1983)이 번역하여 사용한 이후에 다수의 연구에 사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황선명(1994)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와 모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이들은 자신의 양육행동과 더불어 자신이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행동, 즉 조부모의 양육행동을 회고하여 평가하였다. 조부모의 양육행동은 회고 형식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조부모의 양육행동의 경우 '나는 ...'라는 문항은 '우리 아버지는 ...' 혹은 '우리 어머니는 ...'로 수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으로 애정(5문항), 자율(4문항), 거부(5문항), 통제(5문항)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애정 요인은 '내 행동을 자랑스럽게 느끼셨고 또 칭찬도 자주 하시는 편이었다',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편이었다' 등의 문항들이, 자율 요인은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 혼자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두셨다' '내 스스로 혼자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 주시는 편이었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거부 요인은

'내 요구를 무시하시는 편이었다' '나의 양육을 즐겁게 생각하시기보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 등의 문항들이, 통제 요인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였다' '내가 버릇없이 굴 때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곤 하셨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본래는 6점 Likert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대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친조부모의 경우 .65-.86, 외조부모의 경우 .61-.86, 부의 경우 .57-.82, 모의 경우 .62-.80이었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12월 둘째 주부터 한 달간에 걸쳐 서울시 4구에 위치한 9개 유아교육기관 시설장의 허락을 얻어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의 조사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부·회수 되었다. 배부된 480부의 질문지 중에서 310부가 회수되었고(64.5%의 회수율), 이 가운데 부적절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299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Program 15.0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에 의해 산출되었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의 세대전이를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회귀분석 실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에 상관이 높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본 결과, 본 연구의 공차한계값은 .322-.918로 모두 .1이상이었으며, VIF 값은 1.08-3.10으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

되지 않았다(강근석·김충락, 1999).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후에 조부 및 조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친조부모의 양육행동과 부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과 부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친조부와 친조모로 나누어 각 하위요인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 지각한 친조부의 양육행동과 부의 양육행동의 각 요인 간 관계에 있어, 친조부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r=.22, p<.01$) 및 자율적 양육행동($r=.12, p<.0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아버지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애정적, 자율적이었다. 또한 친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은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r=.30, p<.01$) 및 자율적 양육행동($r=.3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과는($r=-.19, p<.01$)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친조부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r=-.14,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행동($r=.31, p<.01$) 및 통제적 양육행동($r=.3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친조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의 거부적 양육행동($r=.21, p<.01$) 및 통제적 양육행동($r=.4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부가 지각한 친조모의 양육행동과 부의 양육행동의 각 요인 간 관계에 있어, 친조모의 애정적 양육은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r=.2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친조모의 자율적 양육은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r=.22, p<.01$) 및 자율적 양육행동($r=.3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어머니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애정적, 자율적이었다. 반면 거부적 양육은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r=-.18,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행동($r=.24, p<.01$) 및 통제적 양육($r=.18,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친조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의 거부적 양육행동($r=.14, p<.05$) 및 통제적 양육행동($r=.37,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외조부모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모가 지각한 외조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의 각

<표 3>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과 부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299)

부의 양육행동	친조부의 양육행동				친조모의 양육행동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애정	.22**	.30**	-.14	-.05	.27**	.22**	-.18**	-.01
자율	.12*	.33**	-.11	-.07	-.03	.30**	-.08	-.07
거부	.06	-.19**	.31**	.21**	.10	-.03	.24**	.14*
통제	-.02	-.01	.30**	.46**	.05	.02	.18**	.37**
M	2.44	2.75	2.07	2.57	2.62	2.73	2.02	2.55
SD	.60	.45	.47	.60	.57	.48	.47	.52

* $p<.05$, ** $p<.01$

<표 4>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299)

모의 양육행동	외조부의 양육행동				외조모의 양육행동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애정	.32**	.24**	-.17**	.03	.39**	.19**	-.24**	-.02
자율	.09	.29**	.02	.00	.13*	.22**	-.09	-.03
거부	-.27**	-.18**	.30**	.22**	-.26**	-.09	.32**	-.14*
통제	.02	.04	.24**	.10	.02	-.12*	.24**	.42**
M	2.53	2.77	1.97	2.57	2.66	2.80	1.93	2.41
SD	.65	.42	.48	.60	.59	.46	.45	.50

* $p<.05$, ** $p<.01$

요인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조부의 애정적 양육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r=.3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과는($r=-.27, p<.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조부의 자율적 양육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r=.24, p<.01$) 및 자율적 양육행동($r=.2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거부적 양육과는($r=-.18, p<.01$)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외조부의 거부적 양육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r=-.17,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행동($r=.30, p<.01$) 및 통제적 양육($r=.24,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조부의 통제적 양육은 모의 거부적 양육행동($r=.2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아버지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더 거부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모가 지각한 외조모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의 각 요인 간 관계에 있어, 외조모의 애정적 양육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r=.39, p<.01$) 및 자율적 양육행동($r=.13,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과는($r=-.26, p<.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조모의 자율적 양육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r=.19, p<.01$) 및 자율적 양육행동($r=.2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제적 양육과는($r=-.12, p<.01$)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외조모의 거부적 양육은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r=-.24,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거부적 양육행동($r=.32, p<.01$) 및 통제적 양육행동($r=.24,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조모의 통제적 양육은 모의 거부적 양육($r=.14, p<.01$) 및 통제적 양육($r=.45,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보다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다.

3.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24, p<.01$), 친조모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20,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4%였다. 즉, 친조부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자신도 애정적인 양육을 하며 친조모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스스로 애정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부의 자율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24, p<.01$), 친조모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18,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4%였다. 즉, 친조부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자신도 자율적인 양육을 하며 친조모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스스로 자율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부의 거부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거부적 양육행동($\beta=.22, p<.05$), 친조모의 거부적 양육행동($\beta=.20,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3%였다. 즉, 친조부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자신도 거부적인 양육을 하며 친조모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스스로 거부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31, p<.001$), 친조모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26, p<.001$)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6%였다. 즉, 친조부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자신도 통제적인 양육을 하며 친조모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스스로 통제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표 5>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β)

(N=299)

친조부모의 양육행동	부의 양육행동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친조부				
애정	-.01	.02	.11	.03
자율	.24**	.24**	-.15	.08
거부	.02	-.02	.22*	-.01
통제	-.01	.03	.01	.31***
친조모				
애정	.20*	.02	.05	.02
자율	.04	.18*	.08	.08
거부	-.09	.08	.20*	-.08
통제	.10	-.05	-.05	.26***
R ²	.14	.14	.13	.26
F(df)	6.08***(9, 290)	5.70***(9, 290)	5.40***(9, 290)	12.49***(9, 290)

* $p<.05$, ** $p<.01$, *** $p<.001$

<표 6>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β)

(N=299)

외조부모의 양육행동	모의 양육행동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외조부				
애정	.12	-.04	-.18*	.00
자율	.13*	.29***	-.02	.12*
거부	.01	.15*	.10	.19**
통제	.11	.07	.15**	.05
외조모				
애정	.26***	.06	-.06	.05
자율	-.00	.13*	.11	-.01
거부	-.15	-.05	.22**	-.03
통제	.08	.01	.01	.38***
R ²	.21	.12	.19	.21
F(df)	9.52***(9, 290)	5.11***(9, 290)	8.74***(9, 290)	9.58***(9, 290)

*p<.05, **p<.01, ***p<.001

4.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26, p<.001$), 외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13,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1%였다. 즉, 외조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스스로 애정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29, p<.001$), 거부적 양육행동($\beta=.15, p<.05$) 및 외조모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13,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2%였다. 즉, 외조부가 자율적이고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자신도 자율적인 양육을 하며 외조모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자신도 자율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거부적 양육행동($\beta=.22, p<.01$) 및 외조부의 애정적 양육행동($\beta=-.18, p<.05$), 통제적 양육행동($\beta=.15,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19%였다. 즉, 외조모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자신도 거부적인 양육을 하며 외조부가 덜 애정적,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자신도 거부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통제적 양육행동($\beta=.38, p<.001$) 및 외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beta=.12, p<.05$), 거부적 양육행동($\beta=.19,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21%였다. 즉, 외조모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자신도 통제적인 양육을 하며 외조부가 거부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스스로 통제적인 양육을 한다고 지각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아동의 아버지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조부와 조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조부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애정적, 자율적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애정적, 자율적이었으며, 덜 거부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덜 애정적이며, 보다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아버지는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다. 조부의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조부의 양육행동 가운데 특히 공격성 조장 행동에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낸 연구결과(박성연, 2002)와 일치하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이르는 양육방식과 더불어 강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역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공격성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Patterson et al., 1989)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1세대 아버지의 결핍된 양육행동이 2세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Capaldi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친조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자신의 어머니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애정적이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애정적, 자율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덜 애정적이며, 보다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부는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다.

둘째, 외조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더 애정적이며, 덜 거부적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더 애정적, 자율적이고 덜 거부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덜 애정적이며, 보다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더 거부적이었다. 외조부의 양육행동과 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가 부진한 실정에서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들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본 연구결과는 부모와 자녀 관계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외조모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의 어머니가 애정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보다 더 애정적, 자율적이고 덜 거부적이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자율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보다 더 자율적, 애정적이고 덜 통제적이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덜 애정적이며, 보다 더 거부적, 통제적이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통제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모는 보다 더 통제적, 거부적이었다. 외조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본 연구결과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지지적인 양육이 다음 세대의 지지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예측하게 한 연구결과들(Belsky et al., 2005; Crossman et al., 1988; Crowell & Feldman, 1988; Whitbeck et al., 1992)과 일치한다. 또한, 외조모의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거부되었던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Cronkenberg, 1987; Laub & Sampson, 1988; Simons et al., 1991)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합한 훈육방법과 긍정적인 강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한 여아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훈육한다는 연구결과(Laub & Sampson, 1988)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1세대 동성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2세대의 애정적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율적 양육행동과 관계가 있다. 1세대 조부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2세대 아버지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외조모와 어머니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성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다음 세대의 자율적 양육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애정적 양육행동이 자율적 양육행동으로 동성부모로부터 2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통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율적 양육행동은 애정적 양육행동과 자율적 양육행동으로 모두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1세대의 자율적 양육행동이 2세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도구의 다른 축인 통제-거부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세대인 조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2세대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전이되는데, 오직 외조부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딸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고,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아동기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거부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거부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2세대의 아버지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했으며, 외조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행동 역시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적 관계가 있다. 그러나 친조부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문자 등(200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경로는 자녀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경험은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딸의 행동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위 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 모두에서 아버지의 양육행동 세대 간 전이는 아들과 딸에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err 등(200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음 세대 아들과 딸에게 직접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조부의 양육행동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마다 아버지의 역할에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역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앞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시대별로 아들과 딸에게 세대 간 어떻게 전이되었는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은 물론 거부적, 통제적 양육행동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도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 간에 전이된다. 즉,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양육경험은 성인이 되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유사한 방식으로 전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외적인 강화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행동을 배우게 되고, 모델이 영향력이 있다거나, 모델의 행동이 긍정적인 강화를 받는 경우 그 행동을 더 잘 모방하게 된다는 Bandura(1969)의 사회학습론적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학습이론은 부모역할 수행의 세대 간 연속성을 강화와 모방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확대 및 신체적 처벌과 같은 양육 방식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적 처벌이나 학대 등의 양육방식은 다음세대에 두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반사적이며 무의식적 형태로 자신의 자녀에게 과거 부모의 양육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둘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엄격한 신체적 훈육 및 처벌의 필요성에 관한 규범을 형성해 양육태도로 발전시키게 된다(Simons et al., 1991). 따라서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과거 부모의 양육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태도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과 친조모의 애정적 양육행동 순으로, 부의 자율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과 친조모의 자율적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의 거부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친조모의 거부적 양육행동 순으로, 부의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친조모의 통제적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부의 양육행동에는 친조부 및 친조모의 양육행동 모두가 영향을 미치나, 특히 친조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딸보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Johnson & O'Leary, 1987; Verlaan & Schwartzman, 2002) 일치한다. 그러나 외조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외조모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모의 경우와 달리, 부의 경우는 친조모의 영향력이 친조부의 경우에 비해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elsky 등(2005)도 역시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는 아들 보다는 딸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양육자로서의 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주양육자인 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 자녀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양육태도를 기반으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이처럼 부의 양육행동은 많은 시간 함께하는 친조모의 양육행동의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되기 때문에 동성 부모인 친조부의 영향 뿐 아니라 친조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문자 등(2005)은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단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정서적 단절을 1세대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2세대 아버지는 아들을 양육하는데 전이할 양육행동을 경험하지 못하여 1세대의 원가족 문화 경험이 아들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조부의 아버지에게 대한 영향력이 외조모의 동성 자녀인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가족의 역할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조부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경험이 적은 유아의 아버지들이 동성인 조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하여, 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외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 순으로, 모의 자율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부의 자율적 양육행동 및 거부적 양육행동과 외조모의 자율적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외조부의 애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 순으로, 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외조부의 거부적 양육행동 및 자율적 양육행동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모의 양육행동에는 외조부 및 외조모의 양육행동 모두가 영향을 미치긴 하나 특히 외조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조모와 외조부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드물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김현주, 1996; 이숙재, 1974; Johnson & O'Leary, 1987; Staples & Smith, 1954; Verlaan & Schwartzman, 2002)와 유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부모 양육행동이 동성 부모-자녀 관계에서 더욱 강하게 세대 간 전이가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조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세대를 통해 전이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의 양육행동에는 외조모의 양육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부의 양육행동에는 친조부의 영향력이 보다 높긴 하지만 친조모의 영향력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조부와 조모의 양육행동이 부와 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를 통해 주양육자인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의 양육행동을 부모에게만 의존하여 측정함으로써, 부모 세대가 지각하는 조부모 세대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자기 보고 형식으로 양육행동을 측정했으나, 이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을 일방적인 방향에서 연구한 것으로(정문자 등, 2004), 1980년대 이후에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강은주, 2000). 본 연구에서도 2세대인 유아의 부모가 지각하는 1세대 조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아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각하여 측정도구에 응답할 수 없어서 부모가 자기 보고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보고자에 의한 응답으로 인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과장될 가능성이 있고(성태제, 2008; 최숙희, 2009), 과거 자신이 받은 양육경험을 회상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정서상태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Blaney, 1986)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모 세대의 보고를 포함하거나 부와 모가 배우자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관찰과 면접 등 질적 접근을 통해 1세대와 2세대의 양육행동 세대전이를 연구하는 것은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이해를 도우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자율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진희(200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다. 아버지의 양육행동 세대 간 전이에 대한 박진희(2003)의 연구에서도 자율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은 .60-.62의 신뢰도를 보여서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 본 연구와 동일한 Shaefer의 MBRI 척도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한 연구들(이원영, 1983; 박은정, 1996; 이병래, 1992)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애정-통제적인 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자율적 양육태도가 증가하였지만 사회변화 및 가치관 변화의 속도와는 차이가 있다(전우경, 강정원, 2008).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에 참여한 2세대 부모들은 1세대 부모들에게 애정-통제적 양육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유아에 대한 자신의 양육태도도 애정-통제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은 자율적 양육행동과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에서 문항 간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양육행동의 세대 간 전이 연구에서 다른 척도 및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의 세대전이 연구에서 조부모-부모 세대 간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 자료로 조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부 및 조모세대의 양육행동이 부모세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개별적 및 상대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다. 나아가,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혹은 조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조모(혹은 조부)의 양육행동의 중재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양육행동의 조부모-부모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주(2000). 자녀성차에 따른 양육태도 세대전이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 이지은 · 장혜란 · 정윤이 · 함윤희 · 김현아(1994). 어머니가 받은 훈육방식과 자녀의 훈육방식과의 비교 연구. *婦學*, 27(3), 99-101.
- 김현주(1995). 어머니가 지각한 친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인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상인(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 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정(1996).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어머니의 양육태도 현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희(2003). 아버지 양육태도의 세대전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문혁준(2000). 부모 훈육방법의 세대간 전이. *대한가정학회지*, 38(5), 107-120.
- 성태제(2008).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손낙주 · 최보가(199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기 평가가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245-257.
- 양옥남(1977). 자녀역할에 있어서 성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금희(1986).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래(1992). 결혼 전 여성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재(1974). 딸과 어머니 두 세대간의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 고인숙 · 심정선(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지희 · 문혁준(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6), 77-88.
- 장혜자(2001). 영유아기의 어머니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세대의 지각. *한국영유아보육학*, 25, 283-304.
- 전우경 · 강정원(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의 차이 비교연구

-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25(2), 61-84.
- 정경희(2000). 고등학생과 부모간의 세대차 인식과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 · 전연진 ·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 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최규순(1991).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간의 아버지 양육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희(2009). 심리통계학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황선명(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안문제 해결사공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승민(1984). 어머니 성역할태도와 자녀 양육가치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iley, J. A., Hill, K. G., Oesterle, S., & Hawkins, J. D.(2009). Parenting practices and problem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Monitoring, harsh discipline, and drug use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14-1226.
- Bandura, A.(1969).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Y.: Holt, Rinehart & Winston.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1), 43-88.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elsky, J., Hsieh, K., Jaffee, S., & Silva, P.(2001). Child-rearing antecedent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7(6), 801-813.
- Belsky, J., Jaffee, S. R., Sligo, J., Woodward, L., & Silva, P. A.(2005).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arm-sensitive-stimulating parenting: A prospective study of mothers and fathers of 3-year-olds. *Child Development*, 76(2), 384-296.
- Blaney, P. H.(1986). Affect and Mem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9(2), 229-246.
- Campbell, J. & Gilmore, L.(2007). Intergenerational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parenting styl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9(3), 140-150.
- Capaldi, D. M., Pears, K. C., Patterson, G. R., & Owen, L. D.(2003). Continuity of parenting practices across generations in an at-risk sample: A prospective comparison of direct and mediated associ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27-142.
- Chen, J. Y. & Kaplan, H. B.(200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1), 17-31.
- Conger, R. D., Belsky, J., & Capaldi, D. M.(2009).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Closing comments for the special s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76-1283.
- Cronkenberg, S.(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4), 964-975.
- Crowell, J., & Feldman, S. 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5), 964-975.
- Crossman, F. K., Pollack, W. S., & Koball, E. H.(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Fagot, B. I.(1978). The influence of sex child on parental reaction toddle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2), 459-465.
- Freud, S.(1952).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logy-analysis*. NY: Washington Square Press.
- Harris, J. R.(1995). Where is the child's environment? A group socialization theory of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02(3), 458-489.
- Jefferis, P. G., & Oliver, C.(2006).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cognitions and conduct problems in young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1(1), 83-102.
- Johnson, P. L., & O'Leary, K. D.(1987). Parental behavior patterns and conduct disorders in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4), 573-581.
- Kerr, D. C. R., Capaldi, D. M., Pears, K. C., & Owen, L. D.(2009). A prospective three generational study of fathers' constructive parenting: Influences from family of origin, adolescent adjustment, and offspring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57-1275.
- Kitamura, T., & Shikai, N.(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style and eprsonality: Direct influence or media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5), 541-556.

- Laub, J. H., & Sampson, R. J.(1988). Unraveling families and delinquency: A reanalysis of the Glueck's data. *Criminology*, 26, 355-379.
- Maccoby, E. E., &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ume IV,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1-101)*. N.Y.; Wiley.
- Patterson, G. R., DeBarsyshe,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hares, V., Fields, S., Kamboukos, D., & Lopez, E.(2005). Still looking for Poppa. *American Psychologist*, 60(7), 735-736.
- Rothbarth, M. K., & Maccoby, E. E.(1966).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227-243.
- Russell, G., & Russell, A.(1987). Mother-child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8(6), 1573-1585.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384.
- Serbin, L. A., & Karp, J.(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psychosocial risk: Mediators of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333-363.
- Shaffer, A., Burt, K. B., Obradović, J., Herbers, J. E., & Masten, A. S.(2009).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in parenting quality: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227-1240.
- Simons, R. L., Whitbeck, L. B., Conger, R. D., & Wu. C.(1991).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harsh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1), 159-171.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823-836.
- Simons, R. L., Baman, J., Conger, R. D., & Chao, W.(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91-106.
- Staples, R., & Smith, J.(1954). Attitudes of grandmothers and mothers towards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25(2), 91-91.
- Steinberg, L., Mounts, N. S., Dornbusch, S. M., Lamborn, S. D., & Darling, N.(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 Symonds, P. M.(1949).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Appleton Century Crafts.
- Verlaan, P., & Schwartzman, A. E.(2002). Mother's and father's Parental adjustment: Links to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in sons and daugh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14-224.
- Whitbeck, L. B., Hoyt, D. R., Simons R. L.,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 Huck, S.(1992).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Parental rejection and depresse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1036-1045.

- 접수일 : 2011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11년 04월 04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6월 20일